

총지종 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취임

“불퇴전의 신심으로 포교 힘 모으자” 취임법어

효강(峯岡) 대종사가 총지종의 법통을 잇는 종령(宗領)에 취임했다.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은 7월 20일 서울 역삼동 총지사 서원당에서 총지종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통이온과 전수, 법의 수의, 행장 소개, 추대사 등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효강 대종사는 “총지종은 교화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절한 교화방편을 실현해야 할 시기에 놓였다”며 “불법과 계율을 준행하는 모범이 되는 청정종단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와 한사람의 중생이라도 건지겠다는 교화에 대한 정열, 불퇴전의 신심을 견지하라”고 법문했다.

앞서 총지종 총리원장 우승 종사는 봉행사를 통해 “효강 종령예하를 중심으로 종단발전은 물론 불교발전의 견인차로 나가는 총지종이 되도록 다짐한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상 스님은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총지종은 종단의 재단법인회에 의한 부명한 증무행정으로 타종단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효강 종령님의 덕화와 지도력에 힘입어 전통과 혁신의 조화 속에서 총지종이 밀교중흥을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대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진각종 총리원장 효

암 정사, 한진수 문화관광부 총무실장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192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효강 종령은 85년 총지종에 입문한 이래 중앙종의회 의원, 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법장원장, 총리원장, 종령 권한대행, 불교TV 대표이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효강 종령은 앞으로 서울 총지사에 주석하면서 종단의 사법(佛法)과 전법(傳法)을 관장한다.



효강 대종사가 7월20일 서울 총지사에서 열린 추대법회에서 총지종의 종령을 상징하는 법의와 가사를 수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상 봉안 등 교화방편 재정립 의지

총지종, 종령취임 계기로 ‘제2창종’ 기치

총지종이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취임 계기로 ‘제2창종’의 기치를 내걸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특히 ‘불상 봉안’ 등 기존의 밀교종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총지종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효강 종령은 추대법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고루한 과거의 유물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의 일환으로 효강 종령은 △시의 적절한 교화방편 시행 △정당교단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적극적

인 사회활동 참여와 회향 △인재 양성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교화방편’의 재정립이다. 이는 창종 30년이 지나면서 종단 기틀 확립과 조직 안정화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신도확보와 포교 등에 있어서는 답보상태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의 대안으로 불상 봉안과 같은 불단의 장엄이라는 방편을 제시했다.

효강 종령은 “종단내부에서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종풍 확립과 밀법 흥포를 위해 불상 봉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12월 총지사에 양부 만다라를 봉안한 이후 불단 장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상 봉안은 종단내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실행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총리원 사무국장 법경 정사는 “교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혁신적인 조치 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효강 종령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종단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재단의 활성화와 도제양성을 위한 예산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종지 널리 퍼자” 대각종 서울총무원 1주년

대각종 서울교구총무원이 있는 대각정사주지 해가는 총무원 개원 1주년을 맞아 7월 18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대각종 총무원장 만경 스님, 대구 여래선원장 해선 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이강국 대각정사 총신도회장과 고수원 여신도회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대각종 총무원장 만경 스님은 “서울교구 총무원장 해가 스님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종도들이 단결하여 대각종지를 널리 펼 것”을 당부했다.



해인종 창종 5주년 세계평화 기원법회

대한불교 해인종(종정 혜지)은 7월 21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해인종 창종 5주년을 기념하며 세계평화 국운융장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원로원장 혜동 스님, 이강원 성재문화원장 등 5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종정 혜지 스님은 “형년불교, 대종불교, 한글불교를 표방하며 창종한 해인종 창종 5년이 결맞게 정진과 포교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법문했다.

이날 해인종 종도들은 세계불교도에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했다.

행자생활·재교육도 없다

우후죽순 종단 이대로 좋은가?

- ① 정제성 모호한 종단 많다
- ② 승려양성·수계체계 강화 시급하다
- ③ 내실 있는 종단으로 거듭나자

30여년간 부산의 A사를 다닌 최진철 씨(51·부산 운정동)는 최근 주지가 바뀐 뒤 이 절이 일반기업에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주도한 새 주지 B스님은 주지를 맡은 직후 사찰을 팔기위해 은사를 양로원에 보내고 잘 운영하던 신도회를 해체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 또 이에 항의하는 불자들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기도 했다. 뒤늦게 알고보니 B스님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근 ○○종에서 승려증을 발급 받아 단시일내(?) 승려가 된 것이었다.

이같은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사찰염의만 했다고 출가자로서의 위의를 갖추고 있는지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사찰재산을 빼돌려 사유화하거나 신도들에게 욕설, 폭행 등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일로 처벌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도리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러한 스님답지 못한 이들의 행태가 승단과 불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불교

스님 자격기준 없는 곳 수두룩 교육기관 공동 운영 등 종단간 협조체계 마련해야

에 대한 불신포조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일고 있다. 또 이들은 각 종단 내에서 종단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라 할 수 있는 위계를 무시하는 등의 처사를 서슴치 않아 종단 기강을 해치는 폐해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일의 발생 근저에는 부처의 행위를 하는 승려를 각 종단에서 철저히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일부 종단에서는 스님양성조차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5개 종단만 놓고 보더라도 3년 이상의 행자, 사미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거쳐 수행자를 배출하는 종단은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에 불과하다. 조계종과 더불어 한국 불교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태고종도 1년의 행자 기간과 4주의 수계삼계를 거쳐 사미(尼)를 배출한다. 정식적인 스님이라 할 수 있는 구족계를 받게 된 것도 올해부터다. 이 외에 관음종, 원운종, 법화종, 원효종 등 대부분의 종단들은 일정기간의 행자생활을 거쳐 사미계를 받도록 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종법에 준해 승려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사미(尼)계 또는 구족계를 주는 종단은

보문종, 법륜종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종단법에 소속되지 않은 일부 종단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종단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의 경우를 뺀만 아니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과 교육에 의거해 승려를 배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자생활과 집체교육 과정을 생략한 체계를 두고 승려증을 발급하는 종단도 있다.

소속 스님들의 재교육이 미진한 점도 승려의 자질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닌다. 각 종단마다 소속 스님들의 재교육체도를 두고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간단한 증무행정 및 행사 안내와 강의 등으로 짜여져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법계와 년차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종단은 조계종 등 일부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종단 자체에서 승려의 자격기준과 득도절차, 승의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진 재가불



자들의 신행을 지도하려면 승려의 자질도 향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승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행자·사미(尼)의 교육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같은 지적이다. 행자·사미(尼) 기간은 승려로서의 인품과 덕행을 지녔기만을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배치와 이수 의무화가 요구된다.

승려양성과 교육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작은 종단들의 경우 종단연합의 승려교육기관, 연수센터 등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조계종 등 교육여건을 갖춘 종단의 승려교육기관에 군소종단의 예비승려가 입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법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종단을 옮기면서 승려를 유지하는 파림치법의 신상을 공개하는 범종단적 공시제도 도입, 승려의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종단별 신고센터 설치, 뚜렷한 종지 확립 등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승려양성 및 수계체계를 갖추지 못한 종단 예비승려와 스님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승려양성, 교육에 관련된 정보교류와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종단간 협조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2004년도 신형 찜질팩 출시!!

기존 제품에 비해 두배반 이상의 희담석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됩니다!!**

결재질 : 항균PVC시트(기존 PVC시트가 항균작용에 취약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균작용을 위해 순금을 첨가 하여 항균 99.9%의 항균작용을 하여 희담석의 강력한 기온과 함께 시트의 항균작용이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생명에너지가 방사됩니다.)

【희담석 찜질팩의 특징】
희담원석 중에서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였고 고수건이나 형질에 싸서 사용하셔도 생명에너지가 그대로 투과됩니다. 희담석 찜질팩을 필요한 부위에 사용하시면 세포의 활력을 높여주어근육통, 신경통,관절염 등 췌시고 걸리는 각종 지병 등이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찜질팩 (신형)
39,800원

1.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2. 원적외선 응용평가센터

지혜의 반지, 합격기원 반야심경 반지

반야심경 반지	반야심경 은(銀)반지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외부(外部)각인된 순반지 폭 약 8mm · 14K Gold : 245,000원 · 18K Gold : 352,000원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내부(内部)각인된 순반지 폭 약 8mm · 14K Gold : 150,000원 · 18K Gold : 198,000원	반야심경 은(銀)반지 은 92.5% 로템도금 크기 : 폭 약 8mm · 38,500원

반야심경 목걸이(원형)	반야심경 목걸이(사각)
가로 18mm, 세로 33mm	가로 21mm, 세로 32mm

특징 :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각인된 원형 펜던트 (뒷면에는 연꽃 문양과 오자 양각)
재질 : Silver 92.5%
* 펜던트와 체인 포함
· 48,000원

희담석 좌복
360,000 → 298,000원

희담석 좌복 출시기념 특별할인판매!!
딱 30개 한정 할인판매입니다.
· 크기 : 세로 720 mm X 가로 390 mm · 색상 : 회색, 살구색

※ 베개검용 고급류대용 케이스 증정

"희담석 좌복"은 살아 숨쉬는 희담석의 뛰어난 생체 활성 메커니즘이 일상 생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신체대사가 원활치 못한 직장인, 수험생, 스님, 운전자에게 매우 유익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거나 하더라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면 기대 이상의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처
불교문화상품 전문소매몰 마하몰
Mahamall.co.kr
02-732-1520
주문전화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허동규